Industry Note
2021. 12. 03

건설

OVERWEIGHT

쉽지 않았던 11월 분양

Analyst 김승준
02) 3787-2005
sjunkim@hmsec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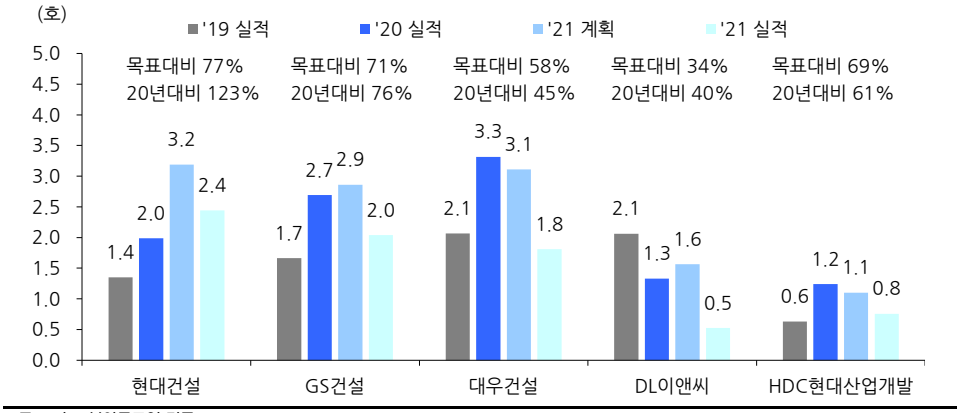
11월 분양: 기대보다 적은 수치, 12월로의 분양 연기

- 11월말 기준 5개 대형사 분양 7.5만세대 기록. 3분기 실적이후 일부 건설사들의 분양 목표치 하향에도 불구, 달성률이 낮은 상황
- 현대건설: 2.4만세대 분양. 목표 3.2만세대 대비 77% 달성. 11월에 힐스테이트 더 운정(3,418세대)외 분양이 없었음. 10개 현장이 11월에서 12월로 연기. 현대엔지니어링은 1.0만세대 분양(11월 2,203세대)
- GS건설: 2.0만세대 분양. 목표 28,600세대 대비 71% 달성. 11월에 송도자이 더 스타(1,560세대)만 분양. 2개 현장이 11월에서 12월로 연기
- 대우건설: 1.8만세대 분양. 목표 3.1만세대 대비 58% 달성. 11월 2개 현장 2,389세대 분양
- DL이앤씨: 5,200세대 분양. 목표 1.5만세대 대비 34% 달성. 9월 이후 분양이 없음.
- HDC현대산업개발: 7,500세대 분양. 목표 1.1만세대 대비 69% 달성. 3분기 실적 후 분양 목표치 하향. 11월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(377세대) 분양

12월 분양: 밀려왔던 현장들 분양이 가능할지 여부가 주가 향방에 영향

- 그 동안 밀려왔던 현장들의 분양이 가능할지가 중요. 12월 5개 대형사 3.2만세대 분양 계획
-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에만 전국 아파트 분양 8.8만세대가 예정. 다만, 계획만큼 진행될지 혹은 내년으로 연기될지 확인 필요
- 각 회사 분양 캘린더를 참고하여 집계한 데이터로, 실 분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현대건설: 12월에 1.5만세대 분양이 계획 중. 모두 달성시 연간 약 4.0만세대 분양이 가능한 수준. 다만, 몇몇 대형 현장들(몬테로이, 포항 환호공원)의 분양 여부가 중요
- GS건설: 12월 5,612세대 계획 중. 계획대로 분양 시 연간 2.6만세대 분양. 연간 목표보다 낮은 수치
- 대우건설: 12월 4,723세대 분양 계획 중. 계획대로 분양 시 연간 2.3만세대 분양
- DL이앤씨: 12월 4,399세대 분양 계획 중. 계획대로 분양 시 연간 9,656세대 분양
- HDC현대산업개발: 12월 1,513세대 분양 계획 중. 계획대로 분양 시 연간 7,564세대 분양

대형사 11월 분양: 연기되는 분양현장들



주: 11/30 분양공고일 기준
자료 : 각 사, 현대차증권

현대차증권

▶ Compliance Note

-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)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김승준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▶ 투자의견 분류

▶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.

- OVERWEIGHT :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- NEUTRAL :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- UNDERWEIGHT :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▶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.

- BUY :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+15%P 이상
- MARKETPERFORM(M.PERFORM) :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-15% ~ +15%P 이내
- SELL :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-15%P 이하

▶ 투자등급 통계 (2020.10.01~2021.09.30)

투자등급	건수	비율(%)
매수	143건	91.1%
보유	14건	8.9%
매도	0건	0%

-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